

- 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1장 1~7절
- 제목 :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노라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이미지가 항상 떠오른다.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어린 교회, 지도자 없이 모이는 교회, 게다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였지만 소아시아 지방을 온통 흔들여 놓은 교회였다. 이 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인다. 훌륭한 교회지도자들이 있고, 편리한 예배환경 안에 있고, 잘 짜인 예배가 있지만 어딘가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무엇이 빠져 있는지 보게 하시고, 빨리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바울은 감사를 연발하고 있다. 다음 구절들을 찾아서 바울의 감사내용을 살펴보자.
* 데살로니가전서 1:2, 2:13, 3:9
2.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을 살피면서 감사를 나누어보자.
“교회의 어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교회를 위한 오늘의 헌신”이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될 것이며
“복음을 위한 교회의 내일”은 더욱 멀리, 더욱 높이 보게 될 것입니다.
3.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고, 이 세 가지가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3절)
* 믿음의 역사 - 데살로니가전서 1:5~6
* 사랑의 수고 - 사도행전 17:5~7a
* 소망의 인내 - 데살로니가전서 1:10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다음의 글을 음미해 보자.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투항하여 만사를 그분의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철저히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신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 말씀기도제목

1.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과 같이 “사랑의 수고”를 귀찮아하지 않고 신앙의 초보자와 공동체를 찾아온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되게 하사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본받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47주년을 기념하며 “교회의 어제”를 감사하고, “오늘의 헌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복음을 위한 내일이 더욱 선명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